

평화드림포럼 제3기 아카데미 참가 후기

= 한반도 마음의 평화와 사랑의 통일 그날까지 =

이재훈 (통일교육위원)

□ 아카데미 운영개요

- 평화드림포럼에서 지난 10.19일부터 11.30일까지(7강) “한반도 평화통일의 묻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전문가와 활동가들을 초빙하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를 다양한 실태에 대한 분석으로 알차게 강의와 논찬 등으로 진행되었다.
- 아카데미 참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후 ZOOM 또는 YouTube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 시간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특히 언제든지 복습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 평화드림포럼 개요 ◆

△ 평화드림포럼은 지난 2021년 6월 25일, 즉 6.25전쟁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암호명 ‘폭풍’이란 이름으로 남침을 하였던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멍에를 드리웠던 날에 “평화를 드림(꿈꾸고), 역사(하나님 나라)에 드리고(실천과 헌신), 한반도와 세계에 드리우자(펼침)”라는 세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를 포럼(인식전환과 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공감과 실천의 외연을 넓혀 나가자는 뜻으로 “평화의 날”로 선포하면서 이 세상에 고고성(呱呱聲)을 울리면서 첫 걸음을 뗐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작업들을 이론과 현장에서의 함께 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기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무한한 관심과 열망으로 계속될 것이다.

△ “평화의 종”이란



- 6.25 당시 강원도 화천 인근지역에서 사방에 흩어진 탄피들을 모아 “평화의 종”을 만들었습니다.
- 남한·북한, 그 누구의 탄피들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께 녹여 제작하였기에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 이제 군사강국이 된 남·북한 모두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화드림포럼”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동기

- 최근 국립통일교육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연구원, 남북사회통합연구원,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평화와 나눔, 평화누리,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평화통일관계 연구기관·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아카데미를 비롯한 강연, 세미나 등을 통해 한반

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소양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그러던 중에 “평화드림포럼”을 소개를 받아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던 중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6.25를 평화의 날로 선포하고,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 남남·남북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론과 현장에서의 작은 몸짓으로 나비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첫째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체제의 고착화, 둘째 남남·남북갈등의 치유방안, 셋째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등 세 가지 화두에 대한 의문점이 무거운 숙제로 남아서 늘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 비록 늦었지만 무거운 숙제에 대해서 남다른 해법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흔쾌히 수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다양한 학습과정에 쉽 없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 배우고 느낀 점

-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체제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연결되면서 적과 나를 갈라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체제가 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통일은 분단이 가져다 준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 이번 3기 아카데미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고찰하는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에 대한 강의는 첫째, 7강중에서 4강의 강사를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국 등 외국에서 교수 등 석학과 전문가, 그리고 활동가들을 초빙하여 분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사례, 시사점 등을 매우 심층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명강의였으며
둘째, 외국 강사의 강의 내용을 자막처리 함에 있어 이해하기 쉬운 단어의 선택, 간결한 문장 구성 등 우리말 강연을 직접 들은 것처럼 편집에 많은 열과 성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셋째, 여타 기관·단체 등에서는 ZOOM 강의를 강의자료 없이 진행되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강의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강의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는 모범 사례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 이 과정에 참여한 우리들은 78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독일과는 달리 6.25전쟁의 동족상잔으로 생긴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정겹게 동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 동안의 수많은 적대관계를 생각할 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6.25를 극복하고 자주 만나 믿음을 쌓아가면서 남북의 구성원들간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것은 곧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서로간의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통일 의지를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 것입니다.
- 아카데미의 기획, 추진, 집행 등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구성으로 다음 아카데미가 벌써 손꼽아 기다려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함에도 아쉬운 대목은 국내 강사의 경우는 집체 강의와 ZOOM 등을

병행함으로써 강의진행의 현장감을 나름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 마무리

○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의 벽과 담만큼이나 우리 남한 사회에 놓인 벽과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막힌 벽과 담이 허물어져 서로 오가고 어울리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 그 오랜 숙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그저 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있어야 한다.

○ 평화드림포럼이 첫째, “남남사이에 막힌 벽과 담”을 허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일어난 파장이 여타 평화통일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파장이 커지다 보면 어느 새 우리 사이를 가로막혔던 벽과 담도 봄날에 내리는 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6.25 동족상잔으로 생긴 “남과 북의 둘 사이에 놓인 벽과 담”을 허물고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굳이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어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면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도 큰 울림을 주는 평화통일의 성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 평화드림포럼 은희곤 대표이사 이사장님께서 “분쟁이 사라진 상태의 평화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생과 공존으로 상존하며 한반도의 번영을 함께 지향하는 평화를 공동의 담론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한다”라고 주창하신대로 꼭 실현되시길 수강생의 한 명으로서 진심을 다해 축원드립니다.

○ 끝으로, 은희곤 이사장님,王大일 아카데미원장님, 김경진 박사님을 비롯한 관계하신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신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 마음의 평화와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긴 여정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즉,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고맙습니다.